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 다시 협상하려 할 수도”

美전문가 “韓, 트럼프와 FTA 개정 관세 부과 안전하지 않아” “트럼프 재선 시 IRA 보조금 위험…반도체법 지원금은 안전”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한국을 다시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시간)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

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승리’로 묘사해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무역을 다시 문제 삼는 게 ‘약간 어색’은 하겠지만 FTA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른 무역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한미 간에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텐텐스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리셀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실을 거론하고서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데이 오버비는 “어느 나라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텐텐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두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한 IRA와는 달리 상원 통과 당시 의원 100명 중 60명이 넘게 찬성하는 등 일부 공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

화당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루리는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60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도체법과 인프라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돈은 꽤 안전하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에서 중국 담당 부대표를 지낸 알트바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해도 중국을 향한 강경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처럼 동맹과 대중국 대응을 강조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외교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일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방어를 돕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트럼프가 나토에 더 집중하고는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재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외교를 중요시한다면 심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日국회의원 94명, 전범 합사 야스쿠니 집단 참배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공물 봉납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 유신회 등 소속이다. 자민당에서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과 가자야마 히로시 간사장 대행 등이 참배했다. 이 모임 부회장인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시대가 됐다”며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참배했다”고 말했다. 이 모임 의원들은 춘계·추계 예대제 때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찾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집단 참배했다. 지난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다



일본 여야국회의원들이 23일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정오를 넘어 참배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국책(國策)에 순직한 분들의 영혼에 숭배의 마음을 갖고 참배했다”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한 담당상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춘계 예

대제 첫날인 2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일컫는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 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항의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1분기 2천583명 살해·2천164명 납치

각종 무장단체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1분기에 최소 2천583명이 살해되고 2천164명이 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보안컨설팅업체 비콘시큐리티 앤드인텔리전스의 지난 1-3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살해·납치 사건 현황 보고서 따르면 하루 평균 28명이 살해당하고 24명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북·중부에서 살해된 사람이 2천70명으

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납치 피해자는 북서부가 1천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북·중부의 사망자 대부분은 ‘도적’으로 불리는 무장단체와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 부족의 유혈 충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는 2014년 치북 괴뢰역학군 납치로 악명을 떨친 보코하람을 비롯해 이슬람국가시야프리카자부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서 못앉아’ 황당 승객에 中항공기 2시간 넘게 지연

중국에서 이륙 전 ‘바로 앉으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누운 채로 버티던 ‘민폐 승객’ 탓에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 운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매체에 따르면 이 소동은 지난 16일 오후 구이린(桂林)공항을 출발해 지난(濟南)으로 향하려던 구이린항공(GT) 1013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여성 승객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좌석 두 개를 잡고 누워서 이륙을 기다렸다. 승무원들이 이 여성에게 “규정상 좌석에 똑바로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여

성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못 앉는다”고 버티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 여성은 누워서 가기 위해 좌석 2개를 미리 예약한 상태였다. 승무원들은 결국 공항 경찰까지 불러 “앉을 수 없으면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여성은 제대로 앉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버티었다고 한다. 다른 승객들도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항공기는 여성이 결국 요구를 수용해 안전벨트를 매고 제대로 앉은 뒤에야 가까스로 출발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